



# 봉 빛 넘 치 는 태 양 의 집

아버지 수령님의 헌신과 조선의 기상으로 맹활약하는 강대한 선군조선, 우리 조국의 불멸의 정신이 나온다. 우리 조국의 불灭의 정신이 나온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날로 비상한 의미로 그 자태를 드러내는 장례한 현실이 천만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는 혁사의 이 시각.

어찌하여 강렬한 그리움, 열화 같은 흡모와 신뢰의 마음들이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달리고 있는 것인가.

조선의 사상, 조선의 기상, 조선

의 전통이 빛날지는 혁명의 성지, 절세의 국자위 대한 정치사가 자랑스럽게 빛나는 성스러운 곳,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불멸의 투쟁사를 길이 전하는 승용함의 정회, 선군조선의 천만년 미래가 창창히 보이는 회망의 결정!

오직 한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믿고 이 세상 깊까지 모시고 따르는 길에 선군조선의 무궁한 승리의 불이 있다. 민족만대번역의 진리를 절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이다.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달리고 있는 세계를 노래한다.

## 만복의 요람

아직은 가끔마다 눈꽃이 흩날리는 겨울이다.

세기를 밝히는 태양의 집 마당에도, 천하를 끌어오는 정일봉마루에도, 물소리 유정한 소백수관안에도 백설의 바다를 장엄히 펼친 백두광이다.

하지만 백두산밀영고향집 앞에 서면 약동하는 불의 홍향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이 펼쳐준다.

우리 인민의 삶이 시작되고 꽂혀나는 집,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행복의 요람인 혁명의 성지에서 봄이 나오는 사랑의 열기로 해서이다.

민족대통운의 날 명장가문에서 탄생 하여서 이 세상 가장 넓은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의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끌어온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끌어온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

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

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

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백

두산밀영고향집에 끌어온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

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

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

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

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

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

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

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

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

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백

두산밀영고향집에 끌어온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

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

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

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

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

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

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

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

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

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백

두산밀영고향집에 끌어온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

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

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

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

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

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

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

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

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

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백

두산밀영고향집에 끌어온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

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

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

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

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

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

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

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

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

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백

두산밀영고향집에 끌어온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

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

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

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

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

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

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

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

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

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백

두산밀영고향집에 끌어온 사랑의

바다,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안기

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 출생은 우리 일가로 불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

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은은 총

포성이 을부짖는 가련한 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례를 끌어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

그 날의 할 일 백두산 대장 김

일성동지의 환희의 음성이 오늘

도 뜨겁게 메아리치는듯 한 백

두산밀영고향집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류례없는 폭

풍우를 헤쳐온 위인의 은공을 삼가

지 말라고 천만의 더운 피 뿐이

면지게 하는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역사, 이는 한순간한순간



# 인민의 사랑 받는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들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과 전자자동화학부에서

독자들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가 천리마고체강련 학교에서 1·만프레스의 생산능력이 10배로 장성하였다. 소식에 접하고 철단들과 소리치며 전진하는 주제 공업의 기상에 가슴들먹이던 때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상징하는 세계 줄지의 특대 혁실플이 그 1·만프레스의 조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에 의한 조종체계를 단 6개월 만에 확립한 주인공들이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다.

그 후 컴퓨터과학대학과 전자자동화학부의 교원, 연구자들은 당과 수령의 용대한 강성대국 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철단돌파전에서 통남산이란 땅의 본분을 지켜 탐구의 길을 풀어왔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했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자에서 틀려오는 혁신의 소식들은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생산공정에 자동조종체계를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올리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소식이 달기 감사편지들, 대학에서 개발한 문서식 음성인식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크게 놀라 보고 있다는 여러 단위 일군들의 전화...

사실 이것은 그들의 연구과

높은 실력으로 최첨단돌파전의 기수 되여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더운 교원 학자들이 이 단위들에는 많다.

그렇게 끝은 컴퓨터과학대학의 책임임군들은 모든 교원, 연구자들이 오늘의 최첨단돌파전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했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통남산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아니나 다를 드러나고 있다.

당 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최첨단돌파전을 벌여나가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이 과정에 여러 강좌와 조직체계 연구개발센터의 교원, 연구자들은 학장 박사 최정호동무와 순명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만강대

혁명 사적관과 백두산일혁명 전적기념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가 첨단기술에 기초한 정보체계를 훌륭히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고귀한 제부인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더 잘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대학 학부에서는 철단돌파전에서 청도업적 단위들이 앞장에서 서로록 잘 도와주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도업적인 것들에는 어느 한 수원지에 나간 리준일동무를 비롯한 교원 학자들은 먹는 물생산과 그 경영을 파악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인는 그나마 큰 영광을 지니었다.

지금 이들은 수원지의 현대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확장하여 전국의 본보기로 창조할 목표를 내세우고 또다시 힘찬 전투를 벌리고 있다.

천리마제 강원 학교에서 나간 김동희, 김명철, 김휘산 등 무를 비롯한 교원 학자들은 초고전력전기로를 비롯한 전기로를 높은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의

제품의 질을 걸고 있다. 오늘도 이들은 쉬임없이 탐구의 길을 걸고 있다. 인민의 사랑과 존경속에 조국의 믿음과 기대 속에 원료투입으로부터 품포장에 이르는 공정체계에 대한 현대화를 성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

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8월 또다시 광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교원 학자들은 알사랑생산을 위한 앞공장을 모모현 대학과 세워야 한다.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주요온천료 양소를 가로수에 내곡온천료 양소소도

있다.

리더종, 주창권, 현수철 등 무를 비롯한 교원 학자들은 현장료를 구체적으로 하여 효모직장의 현대화 설계와 감시 및 조종포그램개발을 짧은 기간에 끝내었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더종, 주창권, 현수철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현장료를 구체적으로 하여 효모직장의 현대화 설계와 감시 및 조종포그램개발을 짧은

기간에 끝내었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제를 스스로 말아안았던 것이다.

리준일, 헤일진 등 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은 당조직의 전력보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

에 비해 전기로의 보수기

을 훨씬 줄이고 정상가동을 보

장하며 제3강간을 놓아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에 기초하여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조로 현대화화



# 누리에 빼아리치는 위인 흠모의 송가

자연도 사람들도 환희에 휘싸이는 뜻깊은 2월의 계절에 이 나라 강산만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위인 흠모의 송가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평화의 복소리 울려오네  
사랑의 복소리 울려오네  
구원의 복소리 울려오네  
오, 위대한 평도자  
내 유통을 없어라  
김정일 동지를  
그이는 인민의 친근한 벗  
그이는 세계가 낳은 아들  
뜨거운 사랑 훌륭되신는  
그이의 넓은 품에 인민은 안겨  
사네...

이것은 가나의 한 노동자가 쓴 시이다.  
그는 여러 기회를 통하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없이 발전 풍부화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이 그이의 천명한 평도민에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고 있는 데 대하여 잘 알게 되었으며 거

기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가 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운명을 한 몸에 떠맡아 안으시고 전선길을 쉬임 없이 걸고 계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적 동은 격파되고 있다. 그에게는 조선의 창창한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이 굳어졌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절세의 위인을 모신 행운으로 하여 체득한 확신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시에 담았던 것이다.

평양의 하늘과 우러르며 위인 청송의 시와 노래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천출원으로 이고기는 하는 유명무명의 시인과 작곡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도처에 있다.

참으로 2월은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위인 흠모와 축원의 송가가 높이 울리는 의의 깊은 계절이다.

2002년에 일본에 히메 «현대 조선문제 연구소» 대표나다 다카시의 시집 「21세기의 태양가」가 출판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고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집에는 60편의 시들이 들어 있다. 필자는 시들에서 뜻깊은 2월의 명절은 역사에 걸이 빛날 기념일이라고 하면 서 동창직인 선군혁명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을 혁명하게 명도 하여 사회주의 보루를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 이끄는 김정일 장군님이 시야 말로 21세기의 태양이시라고 격조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창작적 열정을 안겨 준 것은 주제 사상이였다고 하면서 김정일 장군님은 지구의 중심에 높이 서계시는 세계의 지도자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은 21세기의 대문을 자랑스럽게 열어제끼고 사회주의 강성대 국건설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나가고 있는 기적의 나라라고 노래하였다.

2003년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2000여편의 시와 노래들이 창작되었으나, 창작가들은 한결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자주지대의 위대한 명도자로 격조높이 구가하면서 인류의 숭고한 지향과 넘원을 담은 가사를 창작하고 명곡들로 훌륭히 형성하였다.

2007년에는 가사 「백승의 가치」, 「21세기의 태양 그이의 영광드리네」, 「위대한 태양의 나라」와 「김정일 월쪽꽃」, 「선군혁명 한길로」 등이 창작보금되었다. 로씨야인 알렉산드로 블론스키, 빠지 치 탑께 보는 시 「태양의 존함 김정일」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이렇게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우리파르는 위대한 태양의 본사기자 김종손

# 시대착오적인 무모한 망동

최근에 일본이 미국과 학공 「자위대」의 다음에 주력전투기로 될 가능성성이 높은 다목적 스텔스전투기 「F-35」에 관한 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의 교당국자들이 대하여 토설하였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2011회계년도 예산에서 많은 자금을 「F-35」 스텔스전투기에 대한 연구에 할당하였다. 여기에는 야심적인 군사적 기도가 숨겨져 있다.

일본이 미국과 「F-35」 기에 관한 비밀협정을 체결하고 그 연구와 도입을 추구하는 것은 자국 방위나 평화보장을 위한 행동과는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항공 「자위대」를 미군 전투기들로 무장시키고 보다 현대화, 고도기술화하여 그 작전능력을 부쩍 높이며 동북아시아에서 공중 우세를 차지하여 하고 있다. 이것은 한달동안 일본 「자위대」는 미국 키티포니아주의 한 디어고에 있는 미해병대 기지 등에서 섬이나 티지에 상륙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새해에 들어 렌이 벌어지는 「자위대」의 군사훈련들은 일본 반동들의 재집착동에 매우 임중한 단계에서 발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 나라와 아시아대륙에 대한 세집준비를 다그쳐고 있으며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자위대」를 미해병대와 같은 공격형무력으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는 일본 반동들은 미국에 해상작전무력을 보다 강화하여 군사적 해외 행정목적 실현에 써먹자는 것이다. 일본 반동들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위대」의 「제4000인수송」 훈련과 경외에서의 상륙연습 등에 광범위하게 체험장을 확장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포성을 울리자는 속심에 서고 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무모한 망동이다. 역사에는 되돌려세울 수 없다. 파도로 역사 되살릴 수 없다. 일본 반동들은 벽천된 오늘의 현실을 뚜바로 보아야 하며 군국주의 야망으로 달아온 머리를 식하고 리성 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경수

##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대한 평도자

### 외국인들이 높이 칭송

대동강과 수종합동장을 참관한 외국인들은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뜻을 사랑에 감동을 금치 못해 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동강과 수종합동장을 참관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훌륭한 파일생산기지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셨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김정일동지의 천진은 끝없이 강조하였다.

브라질자유국당대 표단 단장 넬슨 카바스 두스 카우스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대동강과 수종합동장은 대규모의 파일생산기지이다.

대동강과 수종합동장을 참관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훌륭한 파일생산기지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셨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김정일동지의 천진은 끝없이 강조하였다.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 캐트 펠렌시위원회 표단 성원 카린 카멘비흐는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대동강과 수종합동장은 대규모의 파일생산기지이다.

대동강과 수종합동장은 대규모의 파일생산기지이다.